

진도군, 동해 피해 후박나무 현장조사



진도군이 54년 만에 겨울철 극심한 한파로 동해 피해를 입은 후박나무 등의 생육 개선을 위해 현장 조사와 생육 개선을 실시했다.

7일 진도군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과 1월 이상 한파로 국도 18호선 주요 도로변에 식재된 942그루의 가로수 중 376그루가 잎과 가지가 마르고 색깔이 변하는 갈변 등의 동해를 입었다.

진도군은 동해 피해를 미연에 방지

가로수 942그루 중 376그루 갈변 등 피해 발생 기술 자문 따라 잔가지 제거·생육 진증제 투입

하기 위해 12월 초 증산역제제 살포와 녹화마대를 설치했다.

하지만 영하로 기온이 17일 가랑 떨어지고 눈이 10일 가랑 지속적으로 내리는 등 겨울철 극심한 한파로 인해 진도군의 군목이자 서남해안의 대표적 난대수종인 후박나무가 많은 피해를 입었다.

이에 따라 2월 초 가로수인 후박나무 동해 피해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 자체 현장조사를 실시한 후 전남도에 보고했다.

이후 서남해안권 상록수 동해 피해가 심각함에 따라 지난 4월 초순 전남도청 관계자와 기술자문위원을 동반한 현장조사가 이루어졌다.

현장 조사결과 전문가들은 “동해피

해가 심하나 하나 수목이 고사한 상태는 아니다”며 “동결 건조된 고사가지와 갈변된 나뭇잎 제거를 통해 6월까지 생육상태를 지켜보아야 하며, 나무가 완전한 수형을 찾는 데는 2년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진도군은 전문가의 기술 자문과 조치 방안에 따라 갈변된 나뭇잎을 제거하고 생육 진증제 등 영양제를 투입하는 등 동해피해를 입은 후박나무 생육 개선을 시작할 방침이다.

진도군 환경산림과 관계자는 “기술 자문 결과에 따라 지속적으로 동해 피해를 입은 수목을 대상으로 단계별로 조치를 실시하며 생육 상황을 면밀히 관찰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진도=조상용기자



이승욱 강진군수가 지난 1일 군수실에서 ㈜일화 김상근 대표이사와의 유가농 결보리 매입과 쌀귀리 식품개발에 대하여 논의했다.

‘강진 유가농 결보리’, (주)일화와 계약 재배 전국 최대 15만 평 생산...농가 소득 효과 노릇 특출

전국 최대 규모로 재배 중인 강진군 유가농 결보리가 농가 소득의 견인차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강진군은 신전면 일대 유가농 결보리 생산농가와 (주)일화가 지난 2008년부터 계약재배를 추진해 2021년 현재 50ha 규모로, 유가농 결보리를 생산 중이라고 6일 밝혔다.

계약 재배된 유가농 결보리는 국내 최초 100% 국내산 유가농 보리추출액 탄산음료인 ‘맥콜’의 원료로 쓰이며, 농가에게는 동절기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하고 기업에게는 질 좋은 원료를 확보하는 모범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유가농 결보리는 1kg당 1,425원(40kg/57,000원, 1등급 기준)으로, 신전면 10여 농가에서 재배 중이며, 신전 영동농장 저은 참고에 보관 후 선

별과 볶음 과정을 거쳐 (주)일화에 맥콜 원료로 공급된다.

이승욱 강진군수는 지난 1일, 군수실에서 가진 (주)일화 김상근 대표이사와의 면담 자리에서 “유가농 결보리 뿐 아니라, 전국 재배 면적의 60%, 610ha에서 생산되는 강진의 쌀귀리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줄 것”을 요청했다.

쌀귀리는 타임지가 선정한 세계 10대 슈퍼 푸드 가운데, 첫 번째로 꼽히는 건강식품이다.

한편, (주)일화의 ‘맥콜(McCOL)’은 토종 풀라라는 별명을 갖고 있으며, 국내산 유가농 보리추출액으로 주원료로 카페인, 카라멜색소, 방부제, 인공색소 등을 첨가하지 않은 웰빙음료로 알려져 있다.

강진=김영일기자



완도군 노화읍 충도지구 항공 촬영

해남군, AI·구제역 발생 ‘0’

4년 연속 청정지역 유지...철새도래지·농가 통제초소 운영 등

해남군은 AI(조류독감)·구제역 특별방역대책기간을 지난달 28일 종료함에 따라 4년 연속 청정지역 유지에 성공했다고 6일 밝혔다.

고병원성 AI는 지난해 10월부터 전남지역 9개 시·군에서 20건, 전국적으로 340건 발생했다.

해남군은 선제적 방역조치와 축산농가의 협조체계 아래 한건의 AI·구제역도 발생하지 않는 성과를 거뒀다.

해남군은 특별방역대책 기간 중 철새도래지 및 농가통제초소 운영, 철새도래지내 출입통제 구간 운영 등 선제적 예방 활동을 펼쳤다.

또 공동방제단을 활용해 매일 농장소독과 농림부 지원 살수차·광역방제기·드론을 동원한 가금농장과 철새도래지에 대한 물살 틈 없는 차단방역을 실시해 왔다.

군은 잔존바이러스로 인한 추가 발생을 막기 위해 전국 방역지역 해제일인 오는 14일까지 취약요인에 대해서는 강화된 방역조치를 종전대로 연장 운영할 계획이다.

강화된 방역조치는 축산차량·

중사차 철새 도래지 출입금지, 축산차량 농장·시설 방문 전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 알차량의 농장 진입금지, 가금 방사사육 금지, 축산차량외 농장 진입금지 등 행정명령 13종이다.

최근까지도 나주와 장흥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하고, 과거 전통시장 순환감염 등으로 6월까지 간헐적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사례가 있어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다.

현재 전국적으로 46개 방역지역이 운영되고 있으며, 전국 방역지역 해제 조치는 마지막 발생 가금농장의 살처분 소독 완료 후 30일이 지나야 가능하다.

명현관 군수는 “4년 연속 AI 발생 없는 청정해남을 지켜낼 수 있었던 것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24시간 협조한 축산단체 및 축산농가의 노력 덕분이다”며 “AI가 공식적으로 종식될 때까지 경각심을 가지고 방역수칙 준수 및 농장소독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줄 것”을 당부했다.

기동취재본부

완도 노화읍 충도지구, 국비 96억원 투입 배수개선사업 본격 추진한다

완도군이 노화읍 충도지구 배수개선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군 관계자는 “상습 침수가 매년 반복되고 있는 노화읍 충도지구 일원이 농립축산식품부 2021년 배수 개선 신규 착수지구로 선정되어 국비 96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배수개선사업은 홍수 시 농경지 침수 피해가 되풀이 되는 50ha 이상 저지대 농경지에 배수장 등 기반 시설을 설치하여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액 국비가 투입된다.

그동안 군은 노화읍 충도지구 배수개선사업을 추진하고자 2017년부터 농

림축산식품부에 건의하였고 2019년 기본 조사 대상지 선정, 농어촌공사에서 기본 계획을 완료하였다.

올해 세부 실시계획을 거쳐 배수문 6개소 신설 및 정비, 배수로 1.3km 확장 등을 추진하며, 준공은 2025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노화읍 충도지구 배수개선사업으로 농경지 침수 등 재해를 예방하고 안정적인 영농 활동에 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완도=이민혁기자

장흥군, 목공예기능인 양성교육 우드카빙(목각)·서각 교육 운영

장흥군은 조각칼로 나무를 깎으며 일상생활의 변잡함을 잊을 수 있는 우드카빙(목각)과 글자를 새기며 마음을 다스리는 서각 교육을 4월 8일부터 장흥군 역불대 2층 교육장에서 운영한다고 전했다.

군에서 운영하는 목공예기능인 양성교육 과정으로 올해 처음 시도하는 우드카빙은 전기를 사용하는 공구 사용을 최소화하고 조각칼과 망치, 손도끼 등 수공구를 사용하여 일상생활에서 쓰는 목제품을 내 손으로 직접 깎아 만드는 교육이다.

교육은 매주 서각(수요일), 우드카



빙(목요일) 각 6회 차로 운영된다. 2월 중 접수를 마친 총 26명의 교육생이 수업에 참여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직접 나무를 깎고, 그 향기를 맡으면서 코로나19로 지친 심신을 위로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흥=김도영기자

만나서 영광입니다!

영광의 청정자연과 어우러져 탄생한 건강한 우리 식품을 만나보세요